

‘개념적 구성물로서의 기록’의 관점에서 보는 조선시대 성리학 세계관과 기록·기록관리*

The Records and Archives as the Conceptual Constructs and Sunglihak
World View of Joseon Dynasty

노명환(Noh, Meung-Hoan)**

1. 머리말
2. 조선시대의 개념적 구성물로서 기록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틀
3. 조선시대 성리학의 상징·기호 체계와 개념적 구성으로서 기록과 기록관리
 - 1) 개념적 구성을 위한 조선의 기록과 기록관리 행위의 맥락으로서 성리학과 상징·기호 체계
 - 2) 성리학의 기호체계와 개념적 구성으로서의 기록과 기록관리 행위
4. 맺음말

* 이 논문은 2016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이 논문은 ICA 2016(서울총회)에서(2016.09.07)에서 발표한 발제문의 일부분을 수정·보완한 것임.

** 한국외대 사학과, 대학원 정보·기록학과 교수(hoannoh@hanmail.net).

■ 투고일 : 2017년 12월 30일 ■ 최초심사일 : 2017년 1월 5일 ■ 게재확정일 : 2017년 1월 17일

〈초록〉

필자가 보기에 조선시대 기록관리는 무엇보다도 국가이념으로 채택된 성리학의 세계관을 실현시키는 수단으로 발전되었다. 그것은 국가구성원들을 성리학적 세계관의 담지자로 구성시키는 방법과 과정이었다. 즉, 필자는 당시의 기록관리가 후대를 위한 생산과 보존의 목적보다도 우선적으로 성리학적 세계관의 사회를 작동하게 하는 핵심 기제(mechanism)로 작용하였다는 측면에서 본 논문의 논의를 시작하였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업워드(Frank Upward)가 그의 컨티뉴엄 이론에서 제시한 ‘개념적 구성물(conceptual constructs)’로서의 기록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조선시대의 기록과 기록관리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였다. 조선시대의 성리학 세계관과 그에 기초한 상징·기호 체계를 당시 기록의 개념적 구성을 위한 맥락으로서 파악했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각 시대의 가치체계를 나타내주는 푸코의 에피스테메(epistēmē) 개념과 지식의 고고학 방법론을 차용했다. 이를 통해 조선시대의 성리학 세계관의 맥락 속에서 개념적으로 구성되는 기록들이 정치·사회적으로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확인했다. 예를 들어, 개념적 구성을 통해 자연 재해 기록물이 왕의 부덕을 나타내주는 증거가 되고 이는 왕권 견제의 중요한 제도적 수단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사관의 기록 행위도 단순한 기록 행위가 아니라 개념적 구성을 통해 성리학 질서를 지키기 위한 행위로 인지되기에 지엄한 왕의 권력도 자신을 통제하는 사관의 행위를 막을 수 없었다. 사고(史庫)의 기록은 개념적 구성을 통해 ‘후손의 평가를 생각하면서 오늘의 삶을 성리학 세계관에 맞추어 수양하면서 잘 살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그리하여 이 사고의 기록은 당대의 성리학 질서를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주제어 : 개념적 구성, 구성주의, 기록관리, 기호학, 성리학, 에피스테메

〈Abstract〉

Then, why was the system so thorough and strict? How could that be possible? I approached this question by explaining the task of the

Joseon Dynasty for the construction of a Confucian community based on Sunglihak. Sunglihak meant the metaphysics of human nature and universe order, or the rule of heaven. The people who opened the Joseon Dynasty aimed at constructing a Confucian community based on propriety as the principle of the society. The records and archives played an administrative function, for example, controlling royal power, as well as the role of constructing a national community identity based on Sunglihak. This kind of records and records management practices of the Joseon Dynasty can be seen as conceptual construction and conceptual constructs, although they were physical entities in reality. They reflected the Sunglihak value system as, in the words of Michel Foucault, an “episteme” and played a social role based on it. In particular, I explained it in light of the constructivism of Sunglihak and the semiosis concept of Charles Sanders Peirce.

Keywords : Conceptual Construction, Constructivism, Records/Archives Management, Semiotics, Joseon Sunglihak, Episteme

1. 머리말

본 논문에서 필자는 업워드(Frank Upward)가 그의 컨티뉴엄 이론에서 제시한 ‘개념적 구성물(conceptual constructs)’로서의 기록이라는 개념과 이론에 대해서 먼저 설명한다(Frank Upward 1996; 1997). 그 구성 과정으로서의 ‘개념적 구성(conceptual construction)’을 또한 설명한다. 업워드의 컨티뉴엄 이론에 따르면 기록관리 행위와 과정을 ‘개념적 구성(conceptual construction)’으로, 이러한 구성 과정의 결과물로서 기록을 ‘개념적 구성물(conceptual constructs)’로 볼 수 있다. 필자는 이와 비교적인 차원에서 물리적 실체(physical entity) 또는 논리적 실체(logical entity)로서의 기록 개념

을 설명한다. 그러면서 ‘개념적 구성물(conceptual constructs)’로서의 기록 개념의 의의 및 가치에 대해 심도 있게 논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본 논문에서 이러한 개념을 적용하여 조선시대의 기록과 기록관리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즉, ‘개념적 구성’, ‘개념적 구성물’로서의 기록과 기록관리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 조선 시대의 경우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조선시대의 성리학 세계관과 그에 기초한 상징·기호 체계를 개념적 구성을 위한 맥락으로서 설명한다. 상징·기호체계에 의한 개념적 구성의 과정과 구성물로서의 기록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구성주의 및 기호학 이론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필자는 그동안 이와 관련한 연구들을 진행해 왔는데, 특히 지난해 출간한 논문 「기호학 및 ‘성리학적 구성주의’ 이론을 적용한 기록과 기록관리 행위의 본질과 사회적 역할의 이해 : 레코드 컨티뉴엄의 보완에 초점을 맞추어」(노명환 2016)에서 기록학을 위한 구성주의 이론과 기호학의 가치를 자세히 설명하고 논의한 바 있다. 이에 기초하여 필자는 다음 II장에서 설명하는 내용의 ‘성리학적 구성주의’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본고에서는 위의 논문에서 논의한 개념과 이론들에 의거하여 조선시대의 기록과 기록관리 행위의 의미를 그 시대의 가치체계 속에서 설명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각 시대의 가치체계를 나타내주는 푸코의 에피스테메(epistēmē) 개념과 지식의 고고학 방법론을 차용한다. 이러한 개념들과 이론들의 내용과 가치에 대해서는 다음 II장에서 상세히 논의하고 설명한다. 이 이론들에 기초하여 조선시대 기록의 본질과 사회적 역할 및 기록관리 행위의 의미를 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기록학의 학문·이론적 이해를 보다 깊이 할 수 있다고 본다. 우리가 기록관리 전문가로서 우선적으로 치열하게 해야 할 일은 물리적 실체 또는 논리적 실체로서의 기록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러한 기록과 기록관리 행위의 의미에 대해서 또한 언제나 치열하게 사유하는 제세를 견지할 수 있어야 하겠다. 왜냐하면 이 사유 과정을 통해 우리는 다양한 기록의 개념적 구성, 즉 다양한 의미 만들기를 수

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우리는 기록의 많은 다양한 정치·사회·문화적 기능과 역할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기록의 개념적 구성 현상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우리는 오늘날 기록관리의 화두인 기록의 문화적 활용을 위해 매우 유익한 관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유 과정 및 학문·이론적 작업들을 통해 아키비스트의 본질과 역할, 기록관리 제도들을 위해 새로운 시각에서 많은 가치 지향점들을 도출할 수 있으면 한다. ‘개념적 구성물’로서의 기록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조선시대의 기록과 기록관리 행위를 조명하는 작업은 특히, 오늘날의 한국 대통령기록관을 비롯한 통치 권력 기관의 기록과 기록관리 행위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그리고 정치·사회·문화적 활용성을 증대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일반 공공기관들의 기록관리는 물론 민간기록관리 기관들을 위해 다양한 시사점들을 끌어내는데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 시도들은 또한 한국의 기록관리 전통을 세계에 보다 효과 있게 전달하고 효율적인 국제적 소통을 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갖추게 해줄 것이다. 다음의 질문들에 초점을 맞추어 조선시대의 개념적 구성물로서의 기록과 기록관리의 특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첫째, 조선시대에서 자연 재해, 기후, 날씨를 기록화 하는 것이 왜 그렇게 큰 의미를 가졌는가? 자연 재해를 기록한 문서는 임금의 부덕을 증명해 주는 기록으로 여겨지고, 커다란 정치·사회적 역할을 하였다. 왜 그랬는가?

둘째, 사관제도가 왜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그렇게 강화되었는가? 다시 말해 기록관리 제도가 왜 조선시대에 들어와 그토록 철저하게 수행되었는가? 완벽한 보존 및 관리를 위해 깊은 산중에 사고(史庫)를 설치하기 까지 하였다. 그 철저한 기록관리 제도의 목적과 배경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셋째, 견제의 목적을 가지고 절대 권력을 가진 왕에 대한 기록화를 수행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는가? 당시에 왕의 일거수일투족에 대

한 기록화를 수행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왕이 자신에 관한 기록을 보지 못하도록 금기하는 일이 또한 어떻게 가능하였는가? 서양의 군주정 역사에 비추어서 볼 때 이것은 불가사의 하게 보인다. 중세 서양에서는 왕과 봉건영주들이 그들의 독점적 권력행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로 기록관리를 악용하였다(노명환 2011, 100-101). 이에 반해 조선에서는 왕과 고관들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서 기록관리 제도가 수행되었다. 대단히 놀라운 일이다. 이는 오늘날 민주주의 시대에서 추구되는 투명사회를 위한 수단으로서 기록관리의 역할과 일정 측면 유사성을 보여주는 측면이다.

넷째, 사론은 사관의 주관성이 여과 없이 개입될 수 있는 것인데, 실록에 편찬되었다. 공공기관에서 편집된, 즉 등사된 기록인 등록(謄錄)도 실록에 편찬되었다. 이는 업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의 보존을 지향하는 오늘날의 기록관리 관점에서 볼 때, 이해하기 대단히 어려운 사항이다 이 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더군다나 우리는 '실록 편찬에서 왜 초초와 중초는 세초하여 버리고 정초만 보존하였는가?' 하는 질문에 봉착하게 된다.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 초초와 중초를 버렸다고 하는데, 이는 오늘날의 기록관리 원칙인 원본성(originality)과 진본성(authenticity)의 보존 개념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다섯째, 왜 기록관리의 모든 과정에서 성리학의 예(禮)가 실시되었는가? 왕실 의식(儀式, rite), 즉 성리학적 예의 시행을 기록화한 정치한 그림 기록들, 정밀한 반차도 기록들의 목적과 의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여섯째, 후대의 평가와 활용을 위해 당시의 현재가 기록화 되고 관리·전수되어야 했다. 후대의 활용은 의심할 여지없는 기록화 작업의 근본 목표였다. 그런데 언제부터 그 기록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가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즉, 비밀보존연한 및 비공개기간이 책정되어 있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후대는 구체적으로 어떤 누구를 말하는 것이었는가? 예를 들어, 조선 왕조가 지금까지 계속되었다면, 오늘날과 같은 후대 평가 내지는 활용이 이

루어졌겠는가?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조선시대의 기록들, 특히 실록에 의거하여 그 시대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하고 그 시대의 인물과 행위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은 조선왕조가 없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이는 왕조가 없어져야 그 기록에 의거한 후대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말한다. 그런데 그 시대의 행위를 증거로 남기기 위한 기록관리 행위는 왕조를 잘 보존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모순의 논리에 초점을 맞추어 보면 후대의 평가란 실제적인 것이 아니고 추상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필자는 기록을 개념적 구성물로서 보는 이론적 틀을 가지고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연구사를 보면 개념적 구성 내지는 개념적 구성물로서의 기록이라는 주제가 국내에서는 연구대상으로 거의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가운데 조민지가 전시 과정과 기록의 개념적 구성 문제를 기호학 이론을 도입하여 논의하기 시작하였다(조민지 2014). 박성수가 불교의 기록 및 기록관리가 불교사상과 연계되어 어떠한 개념적 구성을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박성수 2016). 이정연은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을 경관아카이브로 만들 것을 제안하였다. 여기에서 그는 기록과 기록관리가 개념적 구성을 하면서 어떻게 의미 만들기, 즉 문화 만들기를 이루어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이정연 2017). 해외에서는 컨티뉴엄 논의와 함께 이루어지는데, 적지 않은 연구들이 수행되어 오고 있다(Frank Upward 1996; 1997). 포괄적으로 기록의 상징성 등과 관련한 연구들이 또한 수행되어 오고 있다(James M. O'Toole 1993; Milton O. Gustafson 1976). 국내에서도 상징성, 기호학 관련한 연구들이 나왔다(오항녕 2003; 이영남 2013; 김성민 2014; Meung-hoan Noh 2013; 조민지 2014; 이영남·조민지 2014; 노명환 2016; 박성수 2016; 이정연 2017). 이러한 연구 성과들과 함께 본 연구도 개념적 구성물로서의 기록의 의미와 사회적 역할에 대한 활발한 연구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했으면 한다.

2. 조선시대의 개념적 구성물로서 기록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틀

업워드(Frank Upward)는 그의 컨티뉴엄(continuum) 이론에서 기록을 물리적 실체(physical entity), 논리적 실체(logical entity), 개념적 구성물(conceptual constructs)로 구분하였다(Frank Upward 1996; 1997). 물리적 실체로서의 기록은 종래의 종이기록에 대한 이해에서처럼 물리적 실체로서 존재하는 기록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기록관리는 이 물리적 실체를 수집, 보존, 관리 그리고 활용을 위해 서비스하는 행위를 말한다. 물리적 실체로서의 기록과 기록관리에 대한 이해와 방법을, 예들 들어 켄킨슨(Hilary Jenkinson)의 업적들에서 우리는 잘 인지할 수 있다. 출처주의 및 원질서 원칙은 물리적 실체로서의 기록을 관리하는 방법론적 근간이었다. 논리적 실체로서의 기록은 전자기록처럼 물리적 실체로서 존재하지 않으면서 메타데이터와 같은 지적 통제 수단을 통해 존재하게 되는 기록이다. 논리적 실체로서의 기록과 기록관리에 대한 이해와 방법은 특별히 전자기록에 대한 이론들에서 잘 볼 수 있다.

개념적 구성물로서의 기록은 인간의 인식 행위의 결과로서 재현, 표상되는 기록을 말한다. 앞의 물리적 실체로서의 기록이나 논리적 실체로서의 기록은 종이기록, 전자기록 등 기록의 형태와 성격에 따른 분류이다. 기록의 구체적인 종류를 뜻한다. 이와는 달리 개념적 구성으로서의 기록은 인간의 인지 작용에 의해 특별한 의미로 구성되는 기록이다. 기록의 의미와 성격의 구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개념적 구성물로서 기록을 보는 관점에 따르면 기록인지 아닌지, 즉 기록의 범주가 인간의 인식 및 인지 작용의 결과로서 결정된다. 중요한 기록인지 아닌지, 즉 기록의 가치 평가 등도 그렇다. 이 인식 과정에서 인식자의 가치관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는 칸트(Immanuel Kant)가 ‘인식이 대상을 결정한다’고 말한 바와 같이 ‘인식이 기록의 의미와 성격 그리고 가치를 결정한다’라는 명제를 가능하게 하는 인식론의 기록 이해라고 할 수 있다. 기록은 증거인가? 혹은 기억의 매체인가? 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도 인식자의 인식 행위 결과로서 결정된다. 기

록의 범주에 대해 예를 들어 보면, 구술기록, 민속기록, 행위예술 기록화 등은 전통적으로 기록의 범주에 속하지 않았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아 기록학의 패러다임에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들이 기록의 범주에 들어오게 되었다(노명환 2013, 327-329).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사상적 사조가 제기한 모더니즘에 대한 비판에서 특별히, 가치 기준의 획일성이 문제시 되었다. 포스트모던 사상가들은 이성(理性)의 잣대로 가능되는 합리성의 정도가 가치의 서열화를 야기하고, 그 이성의 잣대를 장악하는 사람들이 권력자들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 사상을 받아들인 기록학자들과 아키비스트들은 사회가 증거와 정보의 가치에 대한 ‘합리성’이라는 평가 잣대를 획일적으로 적용해 문서만을 기록으로 인정하는 현상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문서기록을 생산하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그러한 문화권은 기록의 세계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열등한 객체로 차별받는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래서 그들은 문서기록의 독점적인 위상을 부정하고, 구술 및 민속기록 등을 기록으로서 인정하고자 하였다. 업무행위의 증거로서만이 아니라 기억의 매개체로서의 기록의 성격과 역할이 강조되었다. 그들은 이렇게 하여 문서기록 문화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기록의 세계에 편입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즉, 이와 같이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아 기록에 대한 변화된 가치관을 갖게 된 사람들이 구술기록, 민속기록, 대중행위예술 기록화 등을 기록의 범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이러한 예를 통해 우리는 기록의 범주가 고정불변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구술기록과 민속기록은 기록이다’라고 하는 인간의 의미부여를 통해서, 즉 개념적 구성을 통해서 이들이 기록이 되었다. 즉, 이러한 개념적 구성을 통해 기록의 범주가 확장되었다. 이러한 논리는 중요한 기록을 선별하는, 즉 기록의 평가 과정에서도 적용된다. 중요한 기록이 고정불변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 인간으로서 아키비스트의 인식이 중요한 기록인지 아닌지를 결정한다. 중요한 기록은 ‘이것이 중요한 기록이다’라고 인간이, 아키비스트가 의미부여를 할 때, 즉 개념적으로 구성을 할 때 결정

된다(노명환 2013, 320-323; 2014; 2016, 168-170). 이러한 과정은 선별자의 주관적 가치관이 작용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개념적 구성물로서의 기록은 인식론의 철학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듯 개념적 구성이란 인간의 인식 작용과 의미부여 행위를 말한다. 그런데 그 의미부여는 인식자와 인식 대상을 둘러싼 맥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기록의 의미, 성격과 가치 구성은 맥락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인간의 인식 작용의 결과인 것이다. 이 과정이 개념적 구성이고 그 결과가 개념적 구성물이다. 그런데 우리는 기록의 개념적 구성은 물리적 실체, 논리적 실체로서의 기록이 존재하는 데서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물리적 실체, 논리적 실체로서의 기록이 변화하는 맥락과 함께 인간의 인식 작용 속에서 의미 만들기를 계속해 가는 것이 기록의 개념적 구성이다. 여기에서 인간의 인식 작용은 인간의 사유 과정을 말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아키비스트로서 물리적 실체인 종이기록 또는 논리적 실체인 전자기록을 가지고 업무활동을 한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작업 속에서 끊임없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 기록의 의미, 성격 그리고 가치 등에 대해 사유한다. 그 결과가 우리의 수집정책, 평가·선별 및 정리·기술 또는 전시 활용의 작업 과정 등으로 나타난다. 이 사유 과정 속에서 기록이 끊임없이 새롭게 의미와 가치를 가지게 된다. 즉, 사유 과정 속에서 기록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개념적 구성물로서 존재할 수 있게 된다. 이 사유 과정이 달리 말해 개념적 구성 과정이다. 인간으로서 아키비스트의 의미부여란 바로 이 사유 행위 또는 과정을 말하겠다. 이러한 사유 과정 속에서 우리(나) 아키비스트는 우리(내)가 하는 작업의 의미와 미래의 방향을 사유할 수 있다. 우리(나)의 사유에 의해서 결정되는, 즉 구성되는 기록과 기록관리 행위의 의미와 성격이 개념적 구성물인 것이다. 이는 물리적 실체, 논리적 실체로서의 기록이 우리(나)의 의미 부여에 의해서 상징·기호로서의 작용을 행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미 부여하는 주체가 나일 수 있고, 사회적 확장 속에서 우리라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개념적 구성으로서의 기록에 대한 이해와 그에 따른 행위는 물리적, 논리적 실체로서의 기록에 대한 관리와 활용의 중요성과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다. 이와 관련한 다양한 방법론을 개발해 가는데 매우 유의할 수 있다. 특히, 기록의 사회·문화적 활용을 위해 큰 의미를 갖는다. 이는 인간이 중심에 선 가운데 기록과 기록관리 행위의 의미와 가치를 확장시키는 것을 뜻한다. 이는 역으로 인간을 위한 기록의 활용은 개념적 구성물로서의 기록에 대한 이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우리가 기록학의 패러다임 변화 이후 마주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기록에 대한 개념 규정을 위하여 물리적 실체, 논리적 실체, 개념적 구성물의 세 차원 모두를 이해하고 공유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지 않고 서로 각기 다른 기록 개념의 어느 하나에 묶여 있어서 다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 서로 소통하기가 매우 어렵고, 원활하게 기록학을 공유하기가 힘들 것이다.

기록학을 개념적 구성의 인식론적 관점에서 천착하기 시작한 아키비스트를 우리는 붐스(Hans Booms)라고 말할 수 있다(노명환 2013, 320-323; 2014; 2016, 173). 왜냐하면 붐스는 기록관리 과정에서 아키비스트의 주관적인 인식의 틀, 즉 개성적인 가치관이 작용하는 측면에 주목하고, 자신의 연구 발표들을 통해 아키비스트를 사회적 동물로 규정한 최초의 아키비스트이기 때문이다. 그는 인간을 사회적 동물로 규정한 아리스토텔레스를 인용하여 인간인 아키비스트를 사회적 동물로 규정했다. 예를 들어, 그는 사회생활에서 획득된 아키비스트의 관점이 기록관리 과정, 특히 평가에서 중요하게 작용함을 설파했다. 그에 따르면 중요한 기록은 본래적으로 고정불변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동물로서 아키비스트의 가치관에 의거하여 포착된다. 기록의 성격과 사회적 역할 등도 인간인 아키비스트의 인식 행위의 결과로서 존재하게 된다. 아키비스트의 인식 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그의 가치관은 그의 사회생활 속에서 획득된다. 그의 사회생활은 시대의 가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서 붐스는 또한 동시에 이러한

시대의 가치를 기록화 하는 것을 아키비스트의 중대한 과업으로 제시했다(Hans Booms 1987). 그런데 사회적 동물로서 아키비스트가 각자 주관성의 가치관 잣대로 기록관리를 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것은 마치 기록관리의 '무정부상태(anarchy)' 같은 것이 되지 않겠는가? 붐스는 이 질문에 직면하여 주관성 사이의, 즉 간주관성의 소통을 생각했다. 그것을 실천하는 장으로서 위원회를 구상했다. 각자의 주관성을 공론의 장인 위원회를 통해 소통시키고 합의에 이르게 한다는 생각을 했다(Hans Booms 1987). 예를 들어, 아키비스트의 조정자(coordinator) 역할과 함께 각 분야의 대표들로 기록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에서 선별작업을 하는 것이다. 다양한 주관성이 공론장으로서의 위원회를 통해 통일된 체계성을, 즉 소위 말하는 '다양성 속의 통일성'을 갖게 하고자 했다. 그때 선별 기준은 시대의 가치를 반영하는 정도이다. 시대의 가치를 잘 반영하는 기록이 중요한 기록이다. 그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각 시대의 가치를 반영하는 기록문화유산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시대의 가치 기준에 의거하여 기록과 기록문화유산이 개념적으로 구성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러한 방식으로 기록과 기록관리 행위의 본질과 방법을 꿰뚫는 붐스의 관점은 젠킨슨의 그것과 확연히 다르다. 여기에서 두 사람 사이의 서로 다른 관점은 기록과 기록관리 행위에 대한 서로 다른 개념적 구성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역으로 서로 다른 개념적 구성을 통해 서로 다른 관점을 계속 만들어 갈 수 있다.

그런데 붐스의 개념인 '시대의 가치'를 포스트모더니즘의 사상가 푸코(Michel Foucault)의 개념을 빌려 '에피스테메(epistēmē)'(Michel Foucault, 이규현 옮김 2012)로 표현해 볼 수 있겠다. 물론 부르디외(Pierre Bourdieu)의 개념을 빌려 이것을 또한 '시대별 아비투스'로 표현할 수도 있다(노명환 2013, 338-341). 푸코의 에피스테메는 각 시대 지식의 생산과 이해를 위한 배경으로 작용하는 가치체계다. 에피스테메는 지식의 시대적 맥락이다. 그는 각 시대의 지식은 그 시대의 에피스테메에 의해서 조명되고 획득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푸코는 각 시대의 지식을 찾아 고고학의 방법으로 각 시대 에피스테메의 층위를 성찰하고자 했다. 이것이 그가 말하는 지식의 고고학 방법이다(Michel Foucault, 이정우 옮김 1992). 포스트모더니즘의 사상가인 그가 에피스테메의 개념과 고고학 방법론을 제안한 것은 오늘날의 시각으로 과거 모든 시기의 지식을 획일적으로 예단하는 오류를 시정하기 위해서였다. 이러한 고고학 방법은 에피스테메의 맥락을 가지고 과거의 지식을 새롭게 구성하고 창조하는 행위였다. 그는 광기, 성, 감시와 처벌 그리고 감옥, 질병과 병원 등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각 시대의 에피스테메를 통해 조명하는 고고학 방법을 사용했다. 그 결과 광기는 광기의 역사, 성은 성의 역사, 감옥은 감옥의 역사, 병원은 병원의 역사 등, 역사의 연구로 귀결되었다. 이러한 연구과정에서 푸코는 기록보존소를 가장 많이 이용한 사상가로 기억되고 있다. 푸코 방법의 연장선상에서 기록학자 기릴랜드는 전자기록을 위한 메타데이터 연구를 위해 에피스테메의 각 층위를 따라 각 시대의 메타데이터들을 분석하자고 제안했다. 자신의 연구를 ‘메타데이터의 고고학’이라 명명하고, 포스너의 업적(Ernst Posner 1972)에 기초하여 고대 오리엔트 지역의 점토판 기록과 그것의 메타데이터를 살펴보았다(Anne J. Gilliland 2011).

인류학자 귀젠(Karin Geuijen)은 “지식은 구성되는 것(construction)”이며, “의미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작가와 텍스트와 독자간의 상호작용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식이 “재현이 아니라 의미의 창출(creation of meaning)”이라고 했다. 지식은 전이되지 않으며 다만 정보만이 전이된다고 했다(김주관 2004에서 직·간접 인용). 업워드의 ‘개념적 구성물로서의 기록’ 개념은 바로 이러한 푸코와 귀젠 같은 관점의 연장선상에 있다 하겠다. 기록의 의미와 가치는, 즉 기록은 개념적으로 끊임없이 새롭게 구성되고 창조되는 것이다. 이것이 다음에 설명하는 것처럼 업워드 컨티뉴엄 사상의 핵심이기도 하다. 케텔라르는 이러한 개념적 구성의 과정을 공론의 장으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그는 ‘경계없는 아카이브(archives

without boundaries)', 즉 공론장으로서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제안했다(Eric Ketelaar 2003, 10-11).

봄스의 인식론적 기록학 관점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에 의한 기록학의 패러다임 변화와 함께 큰 주목을 받게 되었다. 예를 들어, 쿡(Terry Cook)은 봄스의 영향 속에서 기록학의 인식론적 차원을 깊게 했다. 그리하여 그는 기록학에 포스트모더니즘을 접목시키는데 선구자 역할을 수행했다(Terry Cook 2001a; 2001b). 컨티뉴엄 이론에도 봄스의 이러한 인식론적 기록학의 영향이 깊게 배어 있다. 본 논문의 중심 화두인 '개념적 구성물로서의 기록'은 이러한 기록학의 인식론과 포스트모더니즘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다. 컨티뉴엄 이론은 끊임없는 시간과 공간의 맥락의 변화와 더불어 끊임없이 기록의 성격과 사회적 역할이 새롭게 구성된다는 것을 제시한다. 업워드는 이것을 개념적 구성(conceptual construction)으로 설명한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간과 공간의 맥락은 각 층위의 에피스테메로 볼 수 있다. 각 에피스테메에 따라 기록과 기록관리 행위가 다른 의미와 성격 그리고 가치를 갖게 된다. 달리 표현하여 기록과 기록관리 행위가 변화하는 에피스테메에 따라 새롭게 개념적으로 구성된다. 푸코가 각 시대의 에피스테메에 의해 포착된 지식을 설명하고, 이 지식이 또한 그 시대의 에피스테메가 됨을 주장했듯이, 우리는 각 시대의 기록과 기록관리 행위의 의미를 그 시대의 에피스테메에 의해 포착하고 이 결과가 또한 에피스테메가 되는 메커니즘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필자가 조선시대의 에피스테메로서 성리학의 세계관과 기록 및 기록관리 제도의 상호 관계를 연구하는 의의는 바로 여기에 있다.

지금까지 설명한 바와 같이 개념적 구성물로서의 기록은 인간의 인식작용, 달리 표현하여 의미부여 과정을 통해 생성된다. 이러한 논리의 지점에서 필자는 개념적 구성물로서의 기록을 기호학에서 말하는 기호로 볼 수 있고, 이를 통해 기록의 사회·문화적 역할을 풍부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여기에 구성주의(constructivism) 이론이 접목됨으로써 개

념적 구성의 원동력과 방법 그리고 방향성을 체계적으로 논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것이 필자가 지난 수년간 구성주의 및 기호학 이론을 가지고 기록의 본질과 사회적 역할을 규명해 보려 노력해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노명환 2013; 2016; Meung-Hoan Noh 2013). 업워드는 컨티뉴엄 이론을 정립하면서 기든스의 구성주의 이론을 근간으로 채택했다. 그는 끊임없는 기록과 인간으로서 아카비스트 사이의 상호 작용 속에서 일어나는 지속적인 시간과 공간의 맥락의 변화와 이에 따른 기록의 성격 변화를 ‘개념적 구성’의 과정으로 이해했다. 그리하여 컨티뉴엄 이론의 핵심은 ‘기록의 본질과 성격은 끊임없이 구성되어 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구성주의는 개인과 공동체의 정체성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서로 다른 요소들의 끊임없는 상호 작용을 통해 끊임없이 변한다고 보는 현대 서양의 이론 체계이다. 이에 반해 정체성은 본래적인 것이고 변하지 않는다고 보는 관점이 본질주의(essentialism)이다.

그런데 구성주의가 서로 다른 요소들의 상호 작용을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의미체계와 정체성을 만들어 내는 사회·문화 현상을 설명한다고 볼 때, 필자는 ‘성리학적 구성주의’ 개념으로 이러한 구성주의의 본뜻을 보다 명확히 그리고 풍부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¹⁾ 왜냐하면 성리학은 서로 다른 존재를 상징하는 음(陰)과 양(陽) 그리고 그것들의 끊임없는 상호작용과 조화를 통해 오행(五行)을 구성해 내고, 이러한 기반에서 이(理)와 기(氣)의 끊임없는 상호 작용과 조화를 이루어 간다는 개념과 이론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²⁾ 필자가 말하는 ‘성리학적 구성주의’란 서로 다른 요소들 사이의 끊임없는 상호 작용을 통하여 음양오행(陰陽五行), 이기(理氣)의

- 1) 이 주제가 ‘ICA 2016’의 ‘Continuum Theory and Community Archive’ 세션을 필자가 업워드 교수와 공동으로 준비하면서 집중적으로 논의했던 내용이다.
- 2) 성리학은 전통 유교의 윤리를 바탕으로 불교와 도교의 교리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여 중국 송나라 때에 새롭게 정립된 대 사상체계였다. 그리하여 성리학은 ‘신유교’로도 불리운다. 성리학은 인간의 본성(本性)을 하늘의 이치, 즉 천리(天理)를 따르는 것으로, 본래적으로 지순한 선함, 즉 순선(純善)으로 파악하면서 끊임없는 수양을 통해 이를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안유경 2015; 윤사순 1981).

작용처럼 정체성이 끊임없이 새롭게 '다양성 속의 통일' 차원으로 구성되어 가는 것을 말한다(Meung-Hoan Noh 2014; 노명환 2015). 그리하여 성리학적 구성주의는 끊임없는 기록과 인간 사이의 상호 작용에 기초한 기록의 개념적 구성 과정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다. 이에 대해서 필자는 이전 연구에서 상세히 설명했다(Meung-Hoan Noh 2012; 노명환 2016, 178-191).

기호는 인간의 의미부여를 통해 의미를 갖게 된다. 이리하여 기호는 사람에게 무엇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 존재하게 된다. 기호는 상징과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한 기호는 특히, 인간 생활의 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 많은 영향을 미친다. 기호학은 이러한 의미 체계에로서의 기호에 관한 학문이다(송효섭 2013). 이러한 기호의 의미가 한번 결정되면 고정되는 것으로 보는 관점이 소쉬르의 구조주의 기호학이다.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에 따르면 기호는 기표와 기의로 이루어지는데, 사회의 약속, 즉 공동체 공동의 의미부여에 의해 일정한 기표는 일정한 기의를 갖는다. 그런가 하면 기호와 기호 사용자와의 끊임없는 상호 관계 속에서 기호의 의미가 끊임없이 새롭게 만들어져 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 것이 퍼스(Charles Sanders Peirce)의 기호학이다. 그에 따르면 기호가 무엇을 어떻게 나타내 주는지는 기호와 기호 사용자와의 상호 작용 관계 속에서 결정된다. 기호와 기호 사용자 사이의 끊임없는 상호작용과 상호 구성 과정을 기호작용(semiosis)이라 한다. 소쉬르와 퍼스의 기호학은 앞에서 설명한 구성주의 이론과 함께 '기록의 개념적 구성'을 설명하는데 매우 유익할 수 있다. 이는 필자가 '개념적 구성물'로서의 기록을 구성주의와 기호학 이론들을 가지고 설명하려는 이유에 해당한다. 기록학을 위한 기호학의 가치에 대해서 필자는 이전 발제와 논문(Meung-Hoan Noh; 노명환 2016, 154-170)에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조선 시대의 에피스테메로 볼 수 있는 성리학의 맥락 속에서 구성되는 기록의 의미와 정치·사회적 역할을 기호학, 구성주의,

특히 필자의 개념인 ‘성리학적 구성주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왜냐하면 조선 시대의 기록과 기록 관리 행위는 그 시대의 가치체계로서 에피스테메인 성리학 세계관을 반영해 주고 그것에 의해 영향 받으면서 기록과 사람 사이의 기호작용을 통해 정치·사회적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다음 장에서 자연 재해를 기록한 기록이 성리학의 맥락 속에서 ‘왕의 부덕을 나타내 주는 기록’으로 개념적 구성을 이루고, 이것이 기호로써 작용하면서 엄청난 정치·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설명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조선시대에 성리학적 세계관을 실현하는 기제로서 기록관리 제도가 중심의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3. 조선시대 성리학의 상징·기호 체계와 개념적 구성으로서 기록과 기록관리

본장에서는 조선의 성리학과 상징·기호체계, 개념적 구성물로서의 조선 시대 기록과 기록관리 행위에 대해서 알아본다. 머리말에서 제기한 문제제기들을 앞장에서 설명한 에피스테메 개념, 기호학과 구성주의 이론에 기초하여 검토한다.

1) 개념적 구성을 위한 조선의 기록과 기록관리 행위의 맥락으로서 성리학과 상징·기호 체계

1392년 조선을 건국한 공신들인 사대부들은 성리학 이념에 의거하여 국가공동체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중국의 송대(宋代)에 정립된 성리학이 조선에서 치열한 국가이념으로 자리 잡았다. 이처럼 조선에서 성리학이 국가이념으로 채택되면서 성리학 세계관이 사회 전체의 가치체계로 빠르게 자리 잡아 갔다. 앞에서 설명한 푸코의 개념을 빌리면 성리학 세계관

이 조선의 에피스테메로 자리 잡았다. 조선은 성리학 학문의 요람으로 발전되어 갔다. 조선 중기 이황과 기대승의 4단 7정론 논쟁, 중국 송대의 이기이원론에 비해 보다 치밀한 이율곡의 이기일원론 정립 등은 그 정점의 예시였다.

조선 왕조를 성리학 세계관으로 설계한 사대부들 중 가장 주요한 인물은 첫 번째 재상이 된 정도전이었다. 그는 성리학의 사상을 기반으로 조선 왕조의 제도 및 시대정신을 설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가운데 그는 왕과 신하들이 주어진 임무를 잘 수행하도록 감독하고 독려하며 후세에 남기기 위하여 기록 및 기록관리 행위 제도를 강화하고 일정 측면 새로 정립하였다. 즉, 기록과 기록관리 행위는 성리학 이념의 국가공동체를 위해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고안되었다(한영우 1999, 177). 조선시대의 기록관리 제도인 사관제도(史官制度)는 고려시대에 비해 대단히 강화되고 커다란 질적 변화를 보였다. 특히, 다음 절에서 설명하듯이 국왕의 공부와 수양 행위, 예를 들어 경연에 대한 철저한 기록화 작업이 큰 특징으로 자리 잡았다. 그런데 이 기록과 기록관리 행위는 그 시대의 가치체계인 성리학 세계관과의 맥락 관계 속에서 특정 의미를 구성하였다. 그리하여 정치·사회적으로 중대한 역할을 수행했다. 성리학 세계관은 이 시대의 에피스테메로서 기록과 기록관리 행위의 개념적 구성을 위한 맥락으로 작용하는 상징·기호 체계였다. 때문에 조선시대 기록과 기록 관리 행위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맥락으로서 작용하는 당시의 에피스테메인 성리학 세계관과 그에 기초한 상징·기호 체계를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조선시대 기록과 기록관리가 개념적 구성물로서 갖는 의미와 정치·사회적 역할을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에피스테메로서 조선시대의 성리학에 기초한 상징·기호 체계를 좀 더 쉽고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필자는 정도전에 의해 연구되고 설계된 한양 도성을 잠시 살펴보고자 한다. 성리학의 세계관은 가장 가시적

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1394년부터 수도로서 한양이 건설될 때 도성 곳곳에 각인되었다. 정도전은 이러한 수도 한양을 임금, 신하, 백성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성리학의 세계관을 습득하고 실현해 가는 상징·기호의 장으로 만들고자 하였다. 이러한 일상의 메커니즘을 통해 개인의 성리학적 수양을 독려하고 성리학 국가공동체의 정체성과 공동체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남향의 경복궁을 중심으로 한양의 지형적 위치를 보면, 뒤에 북악산 그리고 그 뒤에 북한산, 우측에 백호로서 인왕산, 좌측에 청룡으로서 낙산 그리고 앞에 청계천 그리고 남산, 다시 한강 그리고 관악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배산임수(背山臨水)의 전형인 한양의 지리적 위치는 성리학의 상징·기호체계로서 음양(陰陽)의 조화가 활발하고 오행의 작동이 원활하며, 이(理)와 기(氣)의 상호 작용과 조화가 최상인 곳으로 이해되었다. 즉, 우주의 질서 속에서 인간의 본성이 제대로 발현될 수 있는 곳이었다. 이 가운데서도 음양의 조화가 가장 활발한 곳에 경복궁이 자리하였다. 경복궁의 각 건물들과 자리 배치 그리고 그 이름들도 성리학 세계관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러한 상징·기호체계로 이루어진 경복궁에서 성리학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정사(政事)가 이루어졌고, 이는 사관들의 기록화 작업의 가장 중요한 대상이었다. 한양 내부는 중국의 주나라 때의 예절에 관한 책, 즉 『주례(周禮)』의 「고공기(考工記)」편 내용에 의거하여 기획되었다. 이에 따라 경복궁 앞 왼쪽에는 왕실의 조상신을 모시는 종묘를 두고, 오른 쪽에는 곡식과 토지의 신을 모시는 사직단을 설치했다(홍순민 1999, 40). 종묘와 사직은 임금이 음양의 조화, 즉 하늘과 땅과 인간의 끊임없는 상호 작용과 조화, 즉 천명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이었다. 임금의 임무는 구체적으로 말해 이 종묘와 사직을 잘 보전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종묘와 사직은 조선왕조를 상징했다. 종묘와 사직을 잘 보전하는 왕의 임무는 음양의 조화, 즉 하늘과 땅과 인간의 끊임없는 상호 작용과 조화를 지속시키는데 그 근본이 있었다. 신하들의 임무는 왕의 이러한 과업을 돕는 것이었다. 그 속에서 백성은 무

탈한 삶을 살 수 있었다. 임금이 그러한 조화를 잘 이루어 가지 못할 때, 국가 공동체가 자연 재해 및 여러 재난에 직면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가뭄이 심한 경우 왕은 자신의 부덕을 통감하고, 사직단에 나아가 제례를 올려야 했다. 왕실 조상의 은덕을 받들기 위해 종묘에서 제례를 올렸다. 종묘와 사직의 행사들은 모두 중요한 기록화의 대상이었다. 이 기록화의 결과는 다음 절에서 설명할 의례로 편찬되었다(김문식·신병주 2005, 120-134).

한양을 둘러싼 성곽의 4대문은 동서남북의 방향성을 갖고 성리학의 4가지 덕성인 4단(端), 즉 인의예지(仁義禮智)를 나타내 주었다. 가운데에 종루(鐘樓)를 설치하여 신(信)을 상징하게 했다.³⁾ 그리하여 전체적으로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 5덕(德)의 오행(五行)을 의미하게 했다. 음양의 조화가 활발한 경복궁을 중심으로 남대문은 예(禮) (승례문), 동대문은 인(仁) (홍인지문), 서대문은 의(義) (돈의문), 북대문은 지(智) (숙정문)⁴⁾, 가운데 종루는 신(信)을 뜻했다. 이 전체는 음양오행(陰陽五行)의 원리를 나타내 주었다. 이러한 음양오행 작동의 실질적인 메커니즘과 현상이 기(氣)였다. 이러한 기(氣)를 뒷받침해주는 이(理)가 있는데, 그것은 우주의 이치이며 인간의 본성이었다. 이러한 이(理)와 기(氣)의 상호 작용과 조화가 최상의 상태에서 활발히 이루어져야 했다. 그것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인간이 본성이 제대로 발휘되는 것을 뜻했다. 이러한 성리학적 세계관에 의해 건설된 한양은 물리적인 실체일 뿐 아니라, 상징·기호의 체계로서 체계적인 의미의 관계망으로 이루어진 개념적인 구성물이었다. 임금과 신하 및 백성은 이러한 음양(陰陽)의 조화와 오행(五行) 및 이기(理氣)의 체계를 잘 관리해야 했다. 이에 대한 핵심의 책임은 임금에게 있었다. 이러한 조화 속에서 우주의

3) 종루가 명시적으로 신(信)자가 들어가는 보신각(普信閣)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은 고종이 1895년(고종32년) 이 이름의 사액(賜額)을 내리면서였다(홍순민 1999, 32).

4) 정도전은 태조5년(1396) 북대문을 세우고 이를 지자가 들어가는 홍지문으로 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당시 반대 의견들을 받아들여 숙정문이라 하였다. 그 후 지금의 자리로 옮기면서 숙정문이라 하게 되었다. 지금의 홍지문은 서울 성곽과 북한산성을 연결하면서 방위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 숙종 41(1715)년에 세워진 문이다.

질서가 평안하고 인간 및 우주만물이 행복할 수 있었다. 이것을 위해 왕과 신하 그리고 일반 백성, 즉 모든 인간은 수양을 통해 이(理)를 진작시켜야 했다. 이는 구체적으로 오행인 5덕을 열심히 갈고 닦는 것을 말했다.

조선시대의 국가행정은 이러한 음양(陰陽)의 조화와 오행(五行) 및 이기(理氣)의 체계를 잘 관리하는 상징성을 갖는 행위였다. 즉, 정치 행위와 일상은 이 상징·기호에 의거한 의미 관계망의 체계 속에서 개념적 구성을 이루면서 수행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기록화는 그것이 비록 특정한 물리적 실체로서의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 상징·기호에 의거한 의미의 체계 속에서 개념적 구성을 통한 특정의 의미를 나타내 주는 것이 되었다. 이러한 결과물이 개념적 구성물로서의 기록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러한 기록화가 정치·사회의 작동을 위하여 상징·기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우리는 이 시대의 기록과 기록관리 행위는 성리학 세계관을 나타내 주는 상징·기호로서의 기능을 통해 정치·사회적 역할을 수행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이 기록과 기록관리 행위 제도는 당시의 성리학적 세계관과 그 상징·기호 체계 속에서 정사(政事)에 대한 감독과 독려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조선시대의 기록은 이러한 상징·기호 체계 속에서 구성되는 의미를 기록화 한 개념적 구성물이었다. 이 기록은 또한 다음 절에서 설명하듯이 그 자체가 시대의 에피스테메로서 성리학의 상징·기호 체계를 이루었다. 즉, 조선시대 기록, 기록관리, 특히 사관의 행위는 그 자체 성리학의 상징·기호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조선시대의 기록화 및 기록관리가 그렇게 철저하고 치열하게 이루어 졌던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상징·기호체계는 그 속에서 사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상호 작용하여 성리학의 국가공동체를 강화시킬 수 있었다. 이를 앞장에서 언급한 퍼스의 개념인 기호작용(semiosis)과 필자의 개념인 성리학적 구성주의 이론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2) 성리학의 기호체계와 개념적 구성으로서의 기록과 기록관리 행위

(1) 자연 재해 및 날씨 변화 기록과 개념적 구성

조선시대에 자연 재해 및 날씨 변화는 중대한 기록 사항이었다. 당시에 사관(史官)들과 관리(官吏)들은 이를 철저히 기록화하고 보존·관리했다(김병규 2013, 36-37). 그런데 그 기록들은 물리적 실체로서 뿐만 아니라 개념적 구성물로서의 성격을 가졌다. 당시 이러한 기록화 및 기록관리 행위는 성리학 세계관에 기초한 정치·사회 제도로서 기능했다. 그것은 그 기록들과 기록관리 행위가 개념적 구성, 즉 상징·기호로서의 기능을 수행했음을 의미한다. 왜 그러한가? 조선 시대가 농업 사회인데 자연 재해 및 날씨 변화를 기록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한 기록 행위이지 않았겠는가?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당시의 성리학 세계관에서 자연 재해는 왕이 하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상징적 표증으로 이해되고 있던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다시 말해 임금이 음양오행(陰陽五行), 이기(理氣)의 우주질서를 지켜가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이었다. 즉, 이는 왕이 왕의 소임을 다 못하고 천명(天命)을 어기고 있음을 의미했다(오향녕 2007, 285). 그것은 그 기록이 왕의 부덕 및 자질 부족을 나타내 주는 증거로서 개념적 구성물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조선시대에는 천재지변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었다. 천재지변은 현재의 정치가 잘못 되었을 경우 하늘이 내리는 문책이었다. 사관은 정국의 당면현안을 재이와 연결하여 논평했다.”(이성무 1999, 75) 따라서 이를 기록하는 것은 이러한 상징·기호적 의미를 기록하는 행위였다. 그리하여 이러한 자연 재해에 대한 기록 행위는 왕을 긴장시키고 조신하도록 만드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다. 또한 이는 동시에 왕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왕의 소임을 다하도록 하게 하는 감시와 독려의 행정 제도를 의미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오향녕의 다음의 설명은 그 의미가 크다. “군주가 천지의 마음을 본받아 그것을

여기지 않으면 인간과 만물이 화평함을 얻어 음양이 조화롭게 되어 재이가 사라질 것이라는 논리로, 그런 천지의 마음과 하나가 되기 위한 것, 천리를 보존하는 것이 성학이며, 그 성학의 완성을 위해 격물, 치지, 성의 정심의 수련이 요구되었다.”(오항녕 2007, 285) 그리하여 이 기록은 왕권을 견제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물리적 실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단순히 자연 재해 및 기후의 변화를 나타내 주는 내용을 담은 기록물이었을 텐데, 어떻게 해서 이러한 엄청난 정치·사회적 의미를 갖는 기록이 되었는가? 그것은 물리적 실체로서의 이 기록물이 당시의 성리학적 세계관의 맥락과 함께 의미 만들기를 하여 개념적 구성물로서 새로운 성격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성리학 세계관이 에피스테메로서 조선시대에 어떻게 상징·기호체계로서 작용하였는지는 앞서 설명한 한양 도성의 경우에 잘 볼 수 있었다.

백성의 안녕을 근본으로 하는 민본정치를 기치로 내세우며 왕권을 견제하면서 재상의 권한을 강화하고자 했던 정도전은 개념적 구성물로서 기록과 기록관리 행위가 갖는 이러한 상징적·기호적 기능과 역할에 주목했다. 그리하여 그는 이 기록과 기록관리 행위 제도를 왕의 권한이 아니라 재상의 권한에 속하게 했다. 이를 통해 정도전은 왕의 권한에 대한 신하의 감독권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무수행 권한을 확실하게 제도화하고자 하였다(한영우 1999, 177). 이렇게 본다면 자연 재해 기록 및 기록 관리 행위는 성리학 세계관과 연결되어 왕의 부덕을 상징해주는 개념적 구성물로서 정도전이 성리학적 세계관 속에서 실현하고자 한 재상중심주의 혹은 신권 제도를 가능하게 하는 정책수단적 제도였다고 말할 수 있다. 에피스테메로서 당시의 시대 가치인 성리학 세계관의 맥락에 의해서 이러한 개념적 구성이 이루어 졌다. 정도전이 말하는 재상중심주의는 백성을 위한, 백성을 근본으로 하는, 즉 민본정치를 위한 왕권과 재상권의 상호 작용과 조화를 의미했다. 이는 서로 다른 것 사이의 끊임없는 상호 작용과 조화를 실현시키는, 즉 음과 양의 끊임없는 조화에 기초한

우주 전체의 음양오행(陰陽五行) 이기(理氣) 체계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었다. 이러한 조선 성리학 국가 공동체를 구성해 가는 데 있어서 개념적 구성으로서의 기록과 기록관리 행위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즉, 개념적 구성으로서의 기록 및 기록관리 행위가 이렇게 상징·기호 체계로서 작동을 함으로써 국가공동체의 행정 기제로서 그리고 정체성 구성의 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현상을 앞장에서 설명한 퍼스의 기호작용과 필자의 성리학적 구성주의 이론으로 설명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물리적 실체로서의 기록 개념에 한정해서는 당시의 이러한 자연 재해 기록과 기록관리 행위의 의미와 정치·사회적 역할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음을 확연히 인식할 수 있다. 물리적 실체로서 자연 재해 기록은 당시의 날씨, 기후 그리고 자연재해를 나타내 주는 내용을 특정 매체를 통해 기록한 결과물이었을 것이다. 기록관리 행위는 이러한 물리적 실체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여 후세에 남겨 활용하게 하는 것이 전부였을 것이다. 이와는 달리 개념적 구성물로서의 기록이라는 차원을 통해서 기록과 기록관리 행위는 이러한 정치·사회·문화적 의미를 획득했다. 그러면서 그러한 소통의 매개체가 되어 다양하고 커다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이를 통해 우리가 기록의 본질과 사회적 역할을 폭넓게 만들 수 있음을 뜻한다. 이는 기록이 성리학 세계관이라는 당시의 에피스테메인 상징·기호체계의 맥락에서 상징·기호로 작용할 수 있는 측면을 말해준다. 이를 통해 기록은 많은 다양한 의미를 가지게 되고 다양하고 중대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오늘날 우리가 기록의 문화적 활용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기록의 개념적 구성이라는 이 차원은 그 의미가 대단히 크다고 하겠다. 이것이 기록과 기록관리 행위를 개념적 구성의 관점에서 이해함으로써 열어갈 수 있는 중대한 문화적 차원이고 가치다.

(2) 성리학 세계의 개념적 구성 행위로서 사관 활동

조선은 성리학을 국가이념으로 채택함과 아울러 사관제도를 강화하였다. “성리학을 국시로 삼았던 조선시대에 이르러 다른 어떤 시대보다 역사의식이 고조된 것은 당연한 노릇이다. 성리학으로 고조된 역사학이야말로 조선 왕조실록의 편찬 작업이 쉽 없이 지속될 수 있었던 사상적 배경이었다.”(이성무 1999, 79) 오항녕도 그 원인을 성리학의 도입에서 찾았다. 후손의 평가에 의해 현재 삶의 가치가 결정되는 성리학의 존재구속적인 역사관이 기록과 기록보존의 가치를 높였고 사관제도의 강화를 야기했다고 본다(오항녕 2009). 성리학의 도입과 함께 실록에서 나타난 강목 및 사론의 증가를 후손의 평가에 초점이 맞추어진 존재구속적인 역사관 강화의 증표로 설명했다(오항녕 2007, 87-88, 135-171; 오항녕 1999, 22-25). 윤훈표는 여말 선초에 기록관리 제도가 강화되는 것은 기록물의 증가, 기구와 제도의 확장, 기록물 생산의 증가, 필기도구 등 도구의 개선, 인쇄술의 발달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았다. 그가 보기에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투명성, 설명책임성, 행정의 효율성, 연속성을 강화하고자 한 뜻이 또한 그 원인기도 하였다(윤훈표 2000, 129-166). 필자가 보기에는 근본 원인은 성리학의 도입에 있었고, 제반 기술적 및 다른 인프라적 환경의 변화와 행정상의 목표는 보완적인 차원의 원인이었다고 생각된다.

조선은 우수한 인재들을 사관으로 뽑았다. 이러한 사관들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사론을 작성하도록 하였다(이성무 1999, 66; 김경수 2001). 사관이 사론을 작성할 때 기준점은 앞에서 설명한 자연 재해에 관한 것처럼 시대의 에피스테메로서 성리학의 세계관이었다. 사관은 기록 생산자였다. 또한 실록의 편찬에 참여하였다. 편찬된 실록 및 의궤 그리고 다양한 주요 기록들을 사고에 보존하고 관리하였다. 이렇듯 조선시대 사관은 기록 생산자, 기록편찬·관리자, 기록보존·관리자의 3가지 기능과 역할을 수행했다. 사관의 이러한 3중의 역할을 통해 일종의 당시 기록의 컨티뉴

음이 이루어졌다.⁵⁾ 사관의 사론은 특히 왕과 재상 그리고 고관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성리학적 가치관의 잣대로 평가하면서 기록하고자 노력한 결과였다(이성무 1999, 62). 따라서 사론은 일정 측면 사관의 주관성을 담고 있었다. 사관은 무엇보다도 국가 행정에서 성리학의 가치관에 어긋나는 행위가 있을 때 이를 주시하여 기록하였다. 이 기록은 왕과 고관들에 대한 감시와 탄핵의 기능을 수행했다(이성무 1999, 74).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사관의 사론 작성 행위는 성리학 이념의 국가공동체인 조선 왕조 국가의 투명성, 설명책임성, 행정의 연속성, 그리고 정체성 구성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작용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당시 개념적 구성물로서의 기록의 역할 때문이었다.

사관이 왕의 업무 및 활동에 대해 기록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왕의 공부하는 과정, 특히 왕의 경연이었다(김문식·신병주 2008, 20-23; 오향녕 2007, 282-291). 성리학 세계관에서 공부는 자신에 내재하는 이(理)를 진작시키기 위한 수양 행위였다. 고양된 이(理)의 상태에서 사물의 이치를 깨달아, 즉 격물치지(格物致知)를 통해 음양오행이 작동하는 기(氣)의 세계를 잘 파악할 수 있어야 했다. 기(氣)의 이치를 깨닫고 이것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면서 기(氣)와 이(理)를 조화시킬 수 있어야 했다. 공부는 마음의 수련, 즉 거경함양(居敬涵養)의 한 방법이기도 했다(권오영 2011, 20-23). 임금이 이러한 공부를 게을리 하면 그는 성리학 이념의 국가공동체를 제대로 이끌 수 없고, 그러한 경우 나라가 도탄에 빠지게 될 것이었다. 이러한 논리가 성학론의 기초가 되었다(오향녕 2007, 282-291).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경연에 대한 기록은 임금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가를 감시하는 것이고, 또한 동시에 열심히 하도록 독려하는 상징·기호로서 개념적 구성물이

5) 조선시대의 이러한 사관의 역할에 대해 오늘날의 아키비스트들이 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패러다임 변화 이후 오늘날 아키비스트들은 기록관리는 물론 기록화, 기술채록, 사진기록 생산 등 기록생산자의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아키비스트의 역할은 조선 시대 사관의 역할과 유사해지고 있다.

었다. 물리적 실체의 개념에서 본다면 이 기록은 단순히 임금 경연의 내용을 담은 문서였을 것이다. 기록관리는 물리적 실체로서의 이 문서를 보존·관리 하여 후손에 전달하고 임금에 대한 평가를 하는 자료로 사용하게 하는 기능적 역할에 머물렀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하여 일개 사관이 지엄한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 하는 질문을 제기해 본다. 달리 말하여 왕이 왜 이를 허용하였는가? 하는 질문을 제기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성리학적 세계관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러한 임금의 경연에 대한 사관의 기록이 가능하고, 이것이 임금을 감시하고 긴장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한다. 이에 대해 시대의 에피스테메로서 성리학의 세계관이 이를 가능하게 했다고 우선 답할 수 있다. 즉, 그것은 기록과 기록관리 행위가 성리학적 세계관의 상징·기호체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기에도 가능할 수 있었다. 즉, 기록이 개념적 구성물로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에 가능했다. 시대의 에피스테메로서 성리학 세계관 속에서 누가 감히 사관의 기록행위를 방해할 수 있었겠는가? 임금이 이를 방해한다면 그것은 임금의 존재 의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임금은 시대의 에피스테메로서 성리학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었다. 즉, 이러한 사관들의 행위는 성리학의 세계관에 의해 보호되었다. 사관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성리학적 세계관을 무시하는 행위에 해당했다. 즉, 음양오행(陰陽五行), 이기(理氣)의 성리학 질서를 파괴한다는 의미를 가졌다. 이러한 논리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사관을 함부로 대하고 그의 기록 행위 및 기록화·기록관리 행위를 방해할 수 있었겠는가?(오항녕 2007, 87-88) 이러한 논리와 상징·기호체계 속에서 사관의 기록 행위와 기록 관리는 권력의 정점에 있는 왕도 무섭게 하는 힘을 가질 수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당시의 치열하고 철저한 기록 및 기록관리 행위를 당시의 성리학적 세계관과 사회를 나타내 주는 상징 및 기호로 볼 수 있다. 당시에 기록을 생산하고 기록을 사용하는 학문의 행위도 격물치지와 거경함양의 한 방법이었다. 성리학적

세계관의 사회에서 학문하는 선비가 당시 높은 대우를 받은 것은 이 때문이었다. 이는 기록의 개념적 구성의 차원에서 가능했다. 이러한 유산에서 오늘날에도 한국과 같은 유교권 국가들에서는 교육과 공부가 치열하게 추구되어야 할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사관이 중심의 역할을 수행하는 실록편찬에서 왕은 배제되었다. 이전 왕들의 실록도 볼 수 없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의 지배하에 있는 국가에서 이러한 현상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이것 또한 시대의 에피스테메인 성리학 세계관 속에서 기록의 개념적 구성을 통해 가능했다. 실록편찬의 시작은 왕이 사망한 시점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실록을 편찬할 때 후임 왕은 참여할 수 없었다. 어느 왕도 전왕들 시대의 실록을 볼 수 없었다. 왕은 실록편찬 과정으로부터 완전히 배제되었다. 이렇게 해서 왕권으로부터 실록편찬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했다. 그런데 이것은 원칙으로서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실제의 조선 역사에서 실현되었다. 오직 패륜 왕 연산군만 선대왕의 실록을 본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최고 그리고 거의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실록편찬 과정에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배제될 수 있었는가? 우리는 보통의 상식으로 이해하기 대단히 힘든 이러한 의문에 자연스럽게 봉착하게 된다. 여기에서 필자는 다시 한 번 기록과 기록관리 행위가 성리학 세계관에 의거하여 개념적으로 구성되고, 성리학 세계관의 상징·기호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였다는 점을 강조한다. 왕이 이 기록 생산 및 편찬·보존 과정의 원칙을 어기면 그것은 성리학적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을 의미했다. 단순히 물리적 실체로서의 기록관리 시스템을 와해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시대적 가치인 성리학의 세계관에 의한 개념적 구성물로서의 기록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것이었다. 그것은 성리학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였다. 정도전이 조선의 사관제도를 기획할 때, 이러한 논리에서 왕권으로부터 기록관리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재상권에 복속시키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독립된 기록관리 시스템을 통해 왕권을 견제하고 성리학적

질서를 지켜가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3) 실록의 사론과 등록의 주관성 문제 / 초초와 중초의 세초문제 / 의궤의 의미와 가치

실록을 편찬할 때 가장사초⁶⁾ 제도의 산물인 사관(史官)의 사론(史論)이 포함되었다. 이는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조선의 실록편찬에서만 볼 수 있는 뚜렷한 특징이었다(이성무 1999, 70).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론은 사관(史官)의 성리학적 잣대인 그의 주관성을 담고 있었다. 이러한 주관성을 띤 사론이 선별되어 실록에 편찬되고 기록관리를 통해 후손에게 기록문화유산으로 전해졌다는 것은 오늘날의 기록관리 관점에서 볼 때 이해하기 힘들다.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조선시대 기록관리의 특징을 우리는 등록(謄錄)을 통해서 또한 볼 수 있다. 조선시대의 등록이란 등록(登錄, Registration)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 업무 과정에서 생산된 원본 문서를 요약하여 만들어진 새로운 문서를 뜻하는 것으로서 행정적인 보존과 활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김병규 2013, 37-43). 당시 이러한 등록 문서들을 보존했다는 것은 오늘날의 기록관리 관점에서 볼 때 원본성의 존중 개념이 매우 취약했음을 말해준다 하겠다. 등록과정에서 등록자의 주관성이 작용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원래의 의미가 왜곡될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 이 과정에서 원본과는 달리 등록자의 주관성이 개입된 등록 문서가 업무행위의 증거물로서 보존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불합리하고 위험한 기록관리 시스템이다.

6) 가장사초는 임금이나 고관들의 집무실에 입시하여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 기록하는 입시 사초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집에 돌아와서 자신의 기억을 더듬어 자신의 느낌과 판단 및 평가를 작성하여 집에 비밀리에 보관해 주는 사초다. 이렇게 집에서 작성되고 집에서 비밀리에 보관했던 사초를 실록청이 개설되면 사관은 여기에 제출했다. 이리하여 가장 사초가 실록의 사론으로 편찬되었다. 이러한 가장사초 제도는 절대 최고 권력자인 왕 그리고 고관들에 대한 자유로운 기록행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였다(이성무 1999, 71).

조선시대에 원본성 및 진본성에 대한 존중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로서 실록편찬에서 최종 버전인 정초만 남기고 초초와 중초는 세초하여 버리는 편찬 원칙을 들 수 있다. 최종으로 편찬된 것만이 보존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실록은 당시 업무 행위를 증명해 주는 증거 기록으로서 갖추어야 할 원본성과 진본성의 개념을 결핍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실록편찬 특징들은 오늘날의 기록관리 원칙에서 볼 때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들을 시대의 에피스테메인 성리학 세계관에 기초한 기록 및 기록관리 행위의 개념적 구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해 가능해 진다. 당시에는 본래의 증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리학적 세계관에 기초하여 시대의 가치를 편찬하는, 즉 구성하는 것이 중요했을 수 있다. 이것이 성리학의 국가공동체를 유지·발전시키면서 끊임없이 공동체 구성원의 정체성을 구성해 가는 방법과 과정으로 여겨질 수 있었다. 이를 필자는 앞장에서 언급한 구성주의 또는 필자의 개념인 성리학적 구성주의로 설명하고 싶다. 그리고 그 기록들은 추후에 당시 시대의 가치로서 성리학의 세계관을 증명해 주는 증거로 작용할 수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사관의 사론 작성 및 이에 기초한 실록편찬 그리고 보존·관리 행위가 시대의 에피스테메인 성리학 세계관 속에서 개념적 구성물로서 작동했다고 볼 수 있다. 달리 표현하여 우리는 이를 기호학과 성리학적 구성주의 관점에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성리학의 상징·기호체계 속에서 기록 행위 및 기록 관리 행위가 기호학에서 말하는 기호로서 작용하면서 서로 다른 요소들의 끊임없는 상호 작용을 통하여 사회 정체성 구성 행위를 수행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에 특수하며 경이로운 기록으로서 의궤가 있다. 의궤는 왕실의 주요 행사들을 그림으로 그려 기록화한 반차도와 행사에 사용된 모든 물품 및 행사 기획 과정 등을 기록화한 기록들의 편집 본이었다(심재우 2008; 신병주 2006; 김문식·신병주 2008; 신병주 2010). 이는 다음의 행사를 완벽하

게 거행할 수 있도록 전범의 역할을 하게 하는 목적을 가졌다. 건축 공사 등 국가의 중요한 사업들이 또한 글과 그림을 통해 자세히 기록화 되고 그 기록들이 편찬되었다.

대표적인 것으로서 『화성성역의궤』가 있는데, 이 기록은 이 건물의 보수 및 재건축 등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수원 화성의 재건축 시기에 이러한 활용성이 극명하게 드러났다(김문식·신병주 2008, 188-204). 그런데 의궤의 기록을 이렇게 기능적인 차원에서만 이해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을 단지 생생한 기록화를 시작적으로 또 상세하게 실증적으로 전수하고자 한 실용의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만 이해하기에는 상징·기호적인 활용의 측면이 대단히 컸기 때문이다. 왕실의 행사는 모두 성리학의 세계관을 상징·기호적으로 반영하고 있었다. 앞의 한양 도성의 경우에서 보듯이 건축물들도 그러했다. 따라서 이러한 왕실 의식의 행사에 대한 반차도 기록화와 건축 공사에 대한 상세한 기록화 등은 성리학 세계관을 완벽하게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상징과 기호로 나타내 주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성리학의 예(禮)의 질서를 강조하였다(김문식·신병주 2008, 22-23). 앞의 한양 도성의 사례에서처럼 음양의 조화와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으로 상징되는 오행, 이와 기의 조화를 상징하는 상징·기호 행위로서 의식이 이루어지고 기록화 되었다. 이 기록은 그러한 상징, 기호 행위를 기록화 한 것으로 성리학의 국가공동체 구성을 위하여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졌다. 글을 모르는 백성들까지도 오늘날의 사진과 같은 이 그림 기록으로 예(禮)의 시행을 보고 학습할 수 있었다. 정조 임금 시대에 편찬된 『원행을묘정리의궤』와 당시의 정책 시행은 이러한 대국민 계몽적 목적을 잘 보여준다(김문식·신병주 2008, 168-187). 이 의궤 기록은 당시 실용적인 차원의 학습 및 참고 자료일 뿐 아니라, 개념적 구성을 통해 성리학에 기초한 조선시대의 통치 시스템과 국가공동체의 구성 메커니즘을 상징해 주었다. 기록을 관리하는 절차도 철저하게 성리학의 예를 갖추면서 이루어졌다. 실례로서 『헌종대왕실록청의궤』에 따르

면 사고에 실록을 봉안할 때 다음과 같은 극진한 예를 갖추는 실록 봉안식을 엿볼 수 있다.

“춘추관에서는 기일 전에 遮陽(차양)을 설치하고 자리를 깐다. 仁政殿(인정전) 서쪽 계단 아래 춘추관 동쪽에 肅拜位(숙배위)를 설치한다. 당일 실록을 봉람할 때에 제 당상과 춘추관원은 黑團領(흑단령, 무양)과 烏紗帽(조사모), 黑角帶(흑각대), 黑皮靴(흑피화)를 갖추고 拜位(배위)에 나아가 서열대로 선다(서향). 四拜禮(사배례)를 향하고 마친 다음에 당위에 올라가 무릎을 굽힌다. 춘추관원이 충찬위를 거느리고 史庫(사고)문을 열고 실록궤짝을 奉出(봉출)하여 당상 앞에 놓는다.”(신병주 2001a, 93에서 재인용, 괄호 안은 필자)

사관들이 얼마나 철저히 사고와 사고의 기록들을 관리하였는지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에 의해서 분명히 드러난다. 사관들은 기록의 습기를 제거하기 위한 포쇄 작업 등을 또한 극진히 성리학적 예를 다하며 실시하였다(신병주 2001a, 101-104). 사관들은 이 포쇄 작업 등을 모두 기록화 하였는데, 이것이 ‘실록형지안(實錄形止案)’이었다(신병주 2001a, 98-101). ‘실록형지안(實錄形止案)’은 기록관리 상황을 기록화 한 것으로서 기록의 보존·관리에 대한 사관 업무의 투명성, 연속성 그리고 설명책임성을 대단히 높여줄 수 있는 제도였다. 기록을 버리는 세초 과정도 엄격한 예절 의식(儀式) 속에서 거행되었다. “실록편찬에 들어가면, 이미 그 자체를 의례의 하나로 인식하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실록편찬 전반에 관한 종합보고서인 ‘실록청의궤’의 명칭 자체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말 그대로 실록편찬은 ‘의례(儀)의 과정이자 절차(軌)’였던 것이다.”(오항녕 2003, 26) 조선시대의 의례(儀禮)는 성리학 세계관의 상징·기호 행위였다. 의례를 기록화하는 것은 개념적 구성으로서 성리학 세계관의 상징·기호 행위를 기록화하는 것이었다. 이 기록들을 편찬한 의궤는 또한 성리학적 질서를 지켜내기 위한 상징·기호였다. 개념적 구성물로서의 기록이었다.

(4) 개념적 구성물로서의 사고(史庫)와 기록작용 및 성리학적 구성주의

성리학의 세계관에 따르면 인간은 후세에 의해서 평가받는다. 그 후손의 평가에 의해서 당대의 삶의 가치가 결정된다. 따라서 성리학 사회에서 후손의 평가는 기독교 세계의 신에 의한 최후 심판만큼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기독교 세계에서는 천사가 인간들의 행위에 대한 기록화를 하여 최후 심판에서 신이 이를 근거로 심판을 한다(James O'Toole 1993, 241-243). 이슬람 세계에서도 천사가 기록한 기록에 의거하여 신이 최후의 심판을 한다(손주영 2005, 543-546; 2008, 13-19).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이 기록하고 인간이 심판하는 성리학의 세계와 신이 기록하고 신이 심판하는 기독교 및 이슬람 세계와의 차이를 뚜렷이 볼 수 있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업이 마음에 기록된다고 본다. 마음에 기록된 업을 마음이 읽어 윤회와 해탈을 결정한다. 도교에는 최후의 심판 개념이 없다. 인간의 생멸은 기(氣)가 모이고 흩어지는 것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후손이 평가한다는 측면에서 성리학 세계관은 이러한 불교와 도교의 경우와도 다르다.

이러한 성리학 세계에서는 후세의 평가를 위해서 기록을 성실히 남겨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이는 성리학적 세계관의 존재구속적인 내용인 후세의 평가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기록을 남겨 후세에게 전하는 것이다. 인간이 기록을 남기고 후세의 인간이 이를 근거로 전세의 인간의 행위를 심판한다. 이것이 성리학의 세계관을 국가이념으로 갖는 조선시대 국가공동체의 가장 지엄한 정치행위였다(오항녕 1999; 오항녕 2007). 후손 평가의 기준은 성리학 세계관인 '음양오행 이기의 우주질서를 잘 지켰느냐?'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당시의 기록 보존에 대한 의미를 단순하게 후세의 평가를 위한 기능적인 행위라는 측면에서만 이해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다음의 의문점들에 대한 답을 현재의 기록학적 관점에서 쉽게 찾을 수 없고 당시의 에피스테메인 성리학적 세계관에서 음미해야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우선, 조선시대의 기록 관리에

있어서 사관들이 사고(史庫)에 실록과 의궤 등 기록을 보존하기 시작한 후 얼마의 시간이 지나야 이 기록들을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다. 언제부터 후손이 평가를 위해 이 기록물을 사용할 수 있었는지, 다시 말해 비밀보존 연한 등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후세가 평가를 위해 사고를 이용한 사례도 없다. 사관들은 포쇄 등을 통해 기록물을 정성껏 보존·관리했다. 그러나 이용 서비스는 하지 않았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어떠한 왕도 전왕대의 실록을 볼 수 없었다. 하물며 일반 신하와 백성이 어떻게 볼 수 있었겠는가? 논리적으로 볼 때 한 왕조가 끝나기 전에는 후손이 사고의 기록을 이용할 수 없었다. 그런데 기록관리는 왕조의 존속을 위해 존재했다. 그러니 왕조가 끝난 후의 이용을 전제하는 것도 아니었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기록관리 체계는 보존 기록에 대한 후대의 일반적인 활용을 전제하지 않는 기록관리 체계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조정(朝廷)의 합의가 있을 경우 일정 절차를 거쳐 현재 문제를 위한 참고로서 과거의 선례를 실록과 의궤 등의 기록에서 찾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후손의 조상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 행한 이용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 그렇다면 후손의 평가를 위해서 기록을 보존·관리해야 한다는 성리학 세계의 당위성과 후손이 평가를 위해 이용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 실제 사이의 괴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이에 대한 답을 제시하기 위해 필자는 ‘이 사고(史庫)에 보존된 기록은 어떤 다른 효용성을 가졌는가?’ 라는 질문을 제기한다. 필자가 보기에 이 기록물은 후대의 물리적 활용을 위해서 존재하기 보다는 성리학 세계관에 따른 개념적 구성물로서 당대의 활용을 위해 존재했다. 기록을 보존하고 있는 사고(史庫)의 존재를 통해 당시의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후손의 평가를 떠올릴 수 있었다. 그와 함께 성리학 세계관에 따른 현재의 삶을 잘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강화할 수 있었다. 즉, 후손의 평가에 나타날 자신의 오늘 모습을 성찰하고 성리학적 원리에 맞추어 잘 살도록 자신을 긴장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후손의 평가라는 의식 속에서 오늘의 나와 우리를 스스로 평가하고 수

양의 길을 강화하는 것이기도 했다. 몸과 마음의 조화를 통해 음과 양의 조화, 오행의 조화, 이와 기의 조화를 이루어야 했다. 여기에서 수양은 자신을 성리학 세계관 속에서 끊임없이 새롭게 구성해 가는 것을 의미했다. 이러한 수양은 구성원들로 하여금 성리학 질서에 충실한 삶을 살게 해줄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구성원들은 수신제가치국평천하의 목표를 실천해 갈 수 있었다. 즉, 사고(史庫)는 당대의 사람들로 하여금 성리학 세계관에 따른 사회 시스템에 충실하고, 성리학 국가이념의 공동체 정체성을 공유하게 하는 기능을 가졌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록을 보존하고 있는 사고와 그 안에 보존된 기록들은 물리적 실체이지만 개념적 구성을 통해 그 시대의 상징·기호체계가 되어 정치·사회·문화적으로 커다란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고의 이러한 기능은 앞에서 설명한 한양도성이 갖는 상징·기호적 역할과 유사하다. 성리학의 상징·기호체계와 국가공동체 구성원 사이의 이러한 개념적 구성의 상호 작용은 끊임없이 지속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고는 개념적 구성을 통해 기호학에서 말하는 기호의 역할을 하게 되었고, 사고와 그 사회 구성원과의 끊임없는 기호작용을 가능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마치 음과 양이 끊임없이 상호 작용하여 우주만물에 대한 상징인 오행을 구성해 내는 원리와 같다. 이 현상을 설명하는데 필자는 성리학적 구성주의 개념을 적용한다.

성리학 세계관에서는 미래의 후손에 의한 평가가 마치 기독교의 신에 의한 최후의 심판과 같이 당대의 삶의 의미와 가치에 막중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세계관에서는 이 기록에 자신의 모습과 생활이 어떻게 기록되는가가 죽음과 삶을 결정하는 정도의 중요성을 가졌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그 치열한 기록관리 제도의 시행이 가능했다. 사고를 깊은 산중에 설치하면서까지 가능한 최상의 기록관리를 추구했다. 세조 때 성리학자 양성지가 전쟁과 화재로 부터의 화를 피하기 위하여 산간지역에 사고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하고(한영우 2008, 185-186),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은 뒤인 광해군 때에 실제적으로 설치기 시작되기 까지 치열한 기록관리 의식

이 작용했다(신병주 2001a, 89-90; 김기태 2002).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그 기록이 후손에 의해 물리적 실체로서 이용되는 것은 아니었다. 상징·기호적인 이용만 가능했다. 이는 기록의 개념적 구성을 통해 가능한 것이었다. 이 기록에 담겨서 후손에 전해질 미래의 나와 우리를 생각하면서 나는 그리고 우리는 오늘을 잘 살아야 한다는 개념을 가능하게 했다. 이러한 논리는 마치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Martin Heidegger (이기상 역) 2008)에서 설파한 ‘인간이 자신의 죽음의 순간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잘 살고자 한다는 그래서 인간의 미래가 현재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유와도 매우 흡사하다. 이를 국가 정책 및 통치 전략 측면에서 본다면, 조선시대 기록 관리는 미래 후손의 평가를 위해 오늘의 기록을 잘 남겨야 한다는 사명감만이 아니라, 백성들의 오늘의 삶을 통제하는 목적에 그 원동력이 있었다. 다른 측면으로 앞에서 설명한 정도전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고는 성리학의 상징·기호 체계 속에서 왕권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작용하였다.

전통적인 유교에서 역사는 춘추필법, 포폄으로 과거의 행위를 평가함으로써 오늘을 위한 귀감을 만들어 냈다. 역사의 전범을 찾아 오늘의 행위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았다. 그리하여 오늘의 이상적인 행위를 위한 좌표의 전범을 과거에서 찾았다(이성무 1999, 67). 그런데 성리학 사회에서는 미래 후손의 평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삶의 좌표를 설정했다. 이리하여 과거의 기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철저하게 보존·관리하여 후손에 넘겨주는 것이 중요했다. 이것이 역사와 기록 관리에 관한 전통 유교와 새로운 유교인 성리학 사회와의 뚜렷한 차이였다. 성리학에서는 과거의 전범만이 아니라, 보다 근원적으로 미래에 대한 예견이 현재의 도덕 기준이 되게 하였다.

이에 관련하여 오항녕의 다음과 같은 설명은 매우 의미 깊다. “불교와 도교에 대한 비판적 종합을 이룬 성리학은 인간의 역사관의 변화를 담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유교의 역사관과 성리학적 역사관은 궁극적으로 포

핍을 논하지만, 그 역사적, 사상적 배경이 달랐던 것이다. 그리고 불교의 인간관과 내세관에 밀려 '도덕적' 규범의 지위에 있던 유교의 역사관이 이제 불교의 인간관과 내세관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새로운 인간관의 지원을 받으며, 존재구속적인 역사관으로 변화한 것이다. ... 내세 대신에 후세 사람들이 자리하였다. 사후의 평가라는 역사의 효용이 현세적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볼 때, 성리학적 역사관은 여전히 종교적이다. 그리고 인간이라는 종족의 보존을 부정하지 않는 한 이제 역사의 눈을 피할 곳은 없다.”(오향녕 2007, 81-82) 필자는 이와 함께 당시 성리학 세계관에 기초한 기록의 개념적 구성의 사회적 역할과 의미를 다시한번 강조한다.

4. 맺음말

본문에서 보았듯이 조선시대의 성리학 세계관의 맥락 속에서 개념적으로 구성되는 기록들이 정치·사회적으로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확인했다. 개념적 구성을 통해 자연 재해 기록물이 왕의 부덕을 나타내주는 증거가 되고 이는 왕권 견제의 중요한 제도적 수단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 물리적 실체로서의 자연 재해 기록 그대로라면 당시의 주요 산업인 농업을 위해 필요한 정보나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왕권 견제를 위한 제도적 수단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 사관의 기록 행위도 단순한 기록 행위가 아니라 개념적 구성을 통해 성리학 질서를 지키기 위한 행위로 인지되기에 지엄한 왕의 권력도 자신을 통제하는 사관의 행위를 막을 수 없었다. 사고(史庫)의 기록은 언제 후세의 평가를 위해 사용될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논리적으로 볼 때 본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사용되지 않는 것을 전제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한 사고의 기록은 상징·기호 작용의 개념적 구성을 통해 '후손의 평가를 생각하면서 오늘의 삶을 성리학 세계관에 맞추어 수양하면서 잘 살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당시 사람들은

또한 이 사고에 그러한 상징·기호적 의미를 부여했다. 성리학의 국가공동체 구성원과 사고 사이의 끊임없는 기호작용이 일어났다. 그리하여 이 사고와 기록은 당대의 사람들이 성리학 질서를 지키게 하는데 지속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그런가 하면 당대의 사람들은 사고와 기록이 성리학의 상징·기호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의미부여를 하였다. 그런데 이 과정은 끊임없는 상호 작용의 컨티뉴엄 속에 있었다. 즉 필자의 개념인 성리학적 구성주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당대의 기록과 사람들의 성리학적 구성주의에 의거한 기호작용은 성리학 세계관을 맥락으로 하여 지속적인 개념적 구성, 즉 끊임없는 의미 만들기를 수행하는 것을 말했다.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다. 물론 이 성리학적 구성주의는 당대의 가치체계와 사회구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오늘날 민주주의 가치체계와 사회구조 속에서 작동하는 것과 같은 가치를 만들어 낼 수는 없었다. 당시의 기록과 기록관리 행위가 왕권을 견제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수양하게 한다는 측면은 오늘날의 지향점과 큰 공통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전체적인 틀에서 볼 때 당시의 성리학적 구성주의는 철저한 전체주의 신분사회를 유지·발전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오늘날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적 가치를 지향하는 구성주의 또는 성리학적 구성주의 목표와는 거리가 멀다.

성리학 세계관은 조선시대의 가치체계로서 푸코가 말하는 에피스테메 같은 것이라고 하겠다. 에피스테메는 각 시대의 지식을 형성시키는 가치체계 또는 그 가치체계를 통하여 구성된 지식을 말한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기록의 개념적 구성과 구성물은 에피스테메를 통한 기록의 의미 만들기 또는 그 결과로서의 기록을 뜻한다. 자연 재해의 기록을 조선시대의 에피스테메인 성리학 세계관을 통해 비추어 보면 왕의 부덕함을 나타내주는 증거의 기록이 되고, 이러한 개념적 구성물의 기록이 에피스테메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우리는 각 시대별 기록과 기록관리의 본질과 정치·사회·문화적 역할에 대한 연구를 푸코가 사유한 에피스테메 개념을 차용하여 유용하게 수행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의 지식에 대한 고고학적 방법을 적용하

여 우리는 조선시대의 기록과 기록관리의 의미를 오늘날의 잣대로 해석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그 시대의 가체체계 속에서 파악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 본문에서 설명했듯이 기록이 개념적 구성을 한다는 것은 상징·기호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뜻이다. 여기에서 시대의 가치체계인 에피스테메가 중대한 역할을 수행한다. 각 시대의 에피스테메에 기초하여 개념적 구성을 통해 정치·사회·문화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록의 본질은 우리 기록관리 전문직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우리는 에피스테메에 기초한 기록의 상징·기호적 역할에 대해 철저히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시대의 에피스테메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파악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래야 우리가 관리하는 기록이 이 에피스테메의 맥락 속에서 어떠한 정치·사회·문화적 의미를 갖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붓스가 고민했던 인식론적 방식의 시대의 가치에 기초한 기록의 평가 기준을 마련할 수 있고, 기록의 폭넓은 활용을 위한 전략들을 구사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만약에 우리가 오늘의 에피스테메를 민주주의 세계관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가 관리하는 기록은 그리고 우리의 기록관리 행위는 민주주의 세계관에 기초하여 어떠한 개념적 구성을 할 수 있는지 사유할 필요가 있다. 성리학 세계관과 민주주의 세계관 각각의 에피스테메를 비교할 수 있고, 성리학 세계관 속에서의 기록의 개념적 구성 방식이 민주주의 에피스테메 속으로 어떻게 계승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방법이 조선시대의 기록관리 전통을 오늘날로 계승시키는 진정한 방법이 되리라 생각한다. 기호학과 구성주의, 특히 성리학적 구성주의 이론에 대해 잘 살펴보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기록관리 전문직으로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집중해서 해야 할 일은 물리적 실체로서의 기록 혹은 논리적 실체로서의 기록을 철저히 관리하여 기록문화 유산을 구축하고 활용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가 관리하는 기록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치열하게 사유해야 한다. 그 기록들이 우리 시대의 에피스테메 속에서 어떠한 개념적 구성을

할 수 있는지를 성찰해야 한다. 우리 스스로가 이 에피스테메 속에서 구성되어지는 존재임을, 붐스의 말대로 사회적 동물임을 또한 치열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유 속에서 내 스스로가 성장할 수 있다. 기록의 개념적 구성을 풍요롭게 이루어 내는 진정한 기록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유의 과정이 퍼스가 말하는 기호작용 그리고 필자가 제시하는 성리학적 구성주의가 작동하는 시스템일 수 있다. 이러한 사유과정이 기록관리 전문직이 기능인으로서의 역할을 넘어서서 문화 행위자의 구성적 역할을 또한 수행하게 되는 길이라고도 생각된다. 기록의 문화적 활용의 핵심은 기록의 개념적 구성, 달리 말해 기록의 상징·기호적 활용에 있겠다.

오늘날 우리가 조선시대 기록들을 활용하면서 시간과 공간의 변화와 더불어 기록과 인간의 상호 작용 속에서 이 기록의 성격과 역할의 변화가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음을 실감할 수 있다. 이 기록들은 더 이상 성리학 세계의 의미로만 우리에게 의해 사용되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 우리는 민주주의 혹은 자본주의 세계관을 가지고 이 기록들의 의미를 구성하고 재단한다. 이렇듯 에피스테메로서의 가치체계의 변화는 기록의 맥락 변화를 일으키며 재창조 차원에서의 기록의 활용을 가능하게 해준다. 따라서 개념적 구성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오늘날의 에피스테메에 기초하여 조선시대의 기록과 기록관리 제도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작업은 기록관리 전문직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권오영. 2011. 『조선성리학의 의미와 양상』. 서울: 일지사.
 김경수. 2008. 『조선왕조실록』의 편찬과 사료적 가치. 『전라문화총서』, 27, 15-57.
 김경용. 2011.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기호의 우리, 우리의 기호』. 서울: 민음사.
 김경일. 2001. 조선 전기 사관과 실록 편찬에 대한 연구. 『사학연구』, 62, 125-167.
 김기태. 2002. 조선사고(史庫)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연구. 『기전문화연구』, 제29, 30 합집.
 김문식, 신병주. 2008. 『조선 왕실 기록문화의 꽃, 의궤』, 서울: 돌베개.

- 김병규. 2013. 『조선시대 일사기록관리의 현재적 의미와 시사점』.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성도. 2006. 『퍼스의 기호 사상』, 서울: 민음사.
- 김성민. 2014. 『건축과 공간의 상징성 아카이빙의 의미와 방법모색: 명동성당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용근. 1991. 역사와 함께 부침한 4대사고. 『역사산책』, 9월호.
- 김주관. 2004. 생활사 아카이브 구축의 의미와 방법, 검색일 2016.12.30.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nmnonmn&logNo=110044785507>
- 노명환. 2015. '성리학적 구성주의'와 기호학 이론을 적용한 빌리 브란트와 김대중의 분단극복 정책과 사상의 비교. 역사문제연구소 주최 학술회의 발제문. 2015.8.24.
- 노명환, 조민지, 이정연. 2013. 국정통치기록의 이관에 관한 국제비교: 미국, 독일, 프랑스의 비교를 중심으로. 『역사문화연구』, 48, 145-210.
- 노명환. 2011. 공문장으로서 기록보존소의 역할: 그 역사와 현황 패러다임 변화와 미래 발전 방향: 역사학에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서양사론』, 110, 97-121.
- 노명환. 2012. 역사연구와 기록관리 상호 관계의 패러다임 변화를 통해 본 역사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 랑케의 역사주의와 실증사학에 대한 본질주의와 구성주의 시각의 검토와 함께. 『역사문화연구』, 41, 145-172.
- 노명환. 2013. 구성주의 이론 시각에서 본 기록학/기록관리의 패러다임 변화와 기록화 계획 및 기록화 전략의 의미와 의의. 『역사문화연구』, 45, 313-358.
- 노명환. 2014. 한스 붐스(Hans Booms)의 '시대의 가치 기록화' 패러다임을 통해 본 '구술기록'의 위상과 의미: 기호학과 구성주의 이론의 적용과 함께. 제6회 전국기록인대회 발제문. 2014.10. 한남대학교.
- 노명환. 2016. 기호학 및 '성리학적 구성주의' 이론을 적용한 기록과 기록관리 행위의 본질과 사회적 역할의 이해: 레코드 컨티뉴엄의 보완에 초점을 맞추어. 『역사문화연구』, 57, 149-219.
- 박성수. 2016. 『體相用 원리에 의거한 불교경전 아카이브』. 한국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홍갑. 2008. 조선왕조실록의 의의와 편찬방식. 『Koreana』, 22(3).
- 손주영. 2005. 『이슬람. 교리, 사상, 역사』. 서울: 일조각.
- 손주영. 2008. 이슬람 전통에서의 삶과 내세관. 『한국이슬람학회논총』, 18-1, 1-31.
- 송효섭. 2013. 『인문학, 기호학을 말하다』. 서울: 도서출판 이숲.
- 신병주. 2001a. 《朝鮮王朝實錄》의 奉安儀式과 관리. 『韓國史研究』, 115, 75-105.
- 신병주. 2001b. 『承政院日記』의 자료적 가치에 관한 연구. 『규장각』, 24, 1-20.
- 신병주. 2006. 왕실에서의 기록물 생산과 보존. 『古文書研究』, 28, 1-15.
- 신병주. 2008a. 조선왕조실록의 관리와 보관. 『Koreana』, 22.

- 신병주. 2008b. 조선 후기 기록물 편찬과 관리, 『기록학연구』, 17, 39-84.
- 신병주. 2010. 조선시대 儀軌 편찬의 역사. 『朝鮮時代史學報』, 54, 269-300.
- 심재우. 2008. 조선왕조 儀軌의 현존 상황과 연구 활성화 방안. 『민족문화』, 31, 279-310.
- 연갑수. 2004. 『日省錄』의 사료적 가치와 활용 방안. 『민족문화』, 27, 37-85.
- 오향녕. 1999. 성리학적 역사관의 성립: 초월에서 현실로. 『조선시대사학보』, 9, 1-28.
- 오향녕. 2003. 실록의 의례성에 대한 연구. 『조선시대사학보』, 26, 5-38.
- 오향녕. 2007. 『조선초기 성리학과 역사학: 기억의 복원, 좌표의 성찰』. 서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 오향녕. 2008. 조선전기 기록관리 체계의 이해, 『기록학연구』, 17, 3-37.
- 오향녕. 2009. 『한국 사관제도 성립사』. 서울: 일지사.
- 윤훈표. 2000. 조선초기 공기록 관리제의 개편. 『기록학연구』, 2, 129-168.
- 이성무. 1999. 『조선왕조실록 어떤 책인가: 유네스코 지정 세계기록유산』. 서울: 동방미디어.
- 이영남. 2013. 상징아카이빙: 대통령기록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38, 125-187.
- 이영남·조민지. 2014. 새로운 기록방법론을 위한 기호론적 접근. 『기록학연구』, 41, 113-173.
- 이정연. 2017. 『사회·문화적 상호작용의 시·공간으로서 경관 아카이브 연구: 5·18 민주화운동기록관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만조. 2002. 승정원일기의 작성과 사료적 가치. 『한국학논총』, 24.
- 조궁호. 2003. 『한국인 이해의 개념들』. 파주: 나남.
- 조민지. 2014. 기록과 기억의 문화정치: 국가기록 전시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민지. 2014. 이미지의 시대 기록전시와 사진기록. 『기록학연구』, 39, 73-100.
- 한영우. 1999. 『왕조의 설계자. 정도전』. 서울: 지식산업사.
- 한영우. 2008. 『양성지. 조선 수성기 제갈량』. 서울: 지식산업사.
- 홍순민. 1999. 『우리 궁궐 이야기』, 서울: 청년사.
- Booms, Hans. 1987. Society and the Formation of a Documentary Heritage: Issues in the Appraisal of Archival Sources. *Archivaria*, 24, 69-107.
- Burke, Frank G. 1981. The Future Course of Archival Theory in the United States. *American Archivist*, 44, 40-46.
- Capra, Fritjof. 1983. *Das Tao der Physik: Die Konvergenz von westlicher Wissenschaft und östlicher Philosophie*. Bern: Scherz.
- Cook, Terry. 2001a. Archival science and postmodernism: new formulations for old concepts. *Archival Science*, 1(1), 3-24.
- Cook, Terry. 2001b. Fashionable Nonsense or Professional Rebirth: Postmodernism and the Practice of Archives. *Archivaria*, 51, 14-35.

- Eco, Umberto. 1973. *Il Segno*. Milano: ISEDI. (김광현 역. 2009. 『기호: 개념과 역사』. 서울: 도서출판 열린책들).
- Fehr, Johannes. 1997. *Ferdinand de Saussure Linguistik und Semasiologie*. Frankfurt: Suhrkamp. (최용호 역. 2002. 『소쉬르 언어학과 기호학 사이』, 고양: 인간사랑).
- Foucault, Michel. 1969. *L'Archeologie du savoir*. Paris: Gallimard. (이정우 역. 1992. 『지식의 고고학』. 서울: 민음사).
- Foucault, Michel. 1990. *Mots et les Choses: Une Archeologie des Sciences Humaines*. Paris: Gallimard. (이규현 역. 2012. 『말과 사물』. 서울: 민음사).
- Geuijen, Karin, Raven Diederick and Jan de Wolf (eds.). 1995. *Post-Modernism and Anthropology: Theory and Practice*. Assen, The Netherlands: Van Gorcum and Comp BV.
- Giddens, Anthony. 1984. *The Constitution of Society: outline of the theory of structuration*. Cambridge: Polity Press. (황명주, 정희태, 권진현 역. 1998. 『사회구성론』, 서울: 자작아카데미).
- Gilliland, Anne. 2011. Reflections on the Value of Metadata Archaeology for Recordkeeping in a Global, Digital World. *Journal of the Society of Archivists*. 32, 103-118.
- Gustafson, Milton O. 1976. The Empty Shrine: The Transfer of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and the Constitution to the National Archives. *American Archivist*, 39(3), 271-285.
- Hall, Sean. 2012. *This Means This, This Means That: a User's Guide to Semiotics(2nd ed.)*. London: Laurence King Publishing. (김진실 역. 2016. 『기호학 입문: 의미와 맥락』. 서울: 도서출판 비즈앤비즈).
- Heidegger, Martin. 1927. Sein und Zeit. (이기상 역. 2008. 『존재와 시간: 인간은 죽음을 향한 존재』. 서울: 살림).
- Ketelaar, Eric. 2003. Being Digital in People's Archives. *Archives and Manuscripts*. 31(2), 8-22.
- Klotz, Audie and Lynch, Cecelie. 2007. *Strategies for Research in Constructivist International Relations*. Abingdon: Routledge. (손희상, 이주연 역. 2011. 『구성주의 이론과 국제관계 연구 전략』,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 Meung-Hoan Noh. 2012. "Sunglihak (metaphysics on human nature and universe order), Confucian Community Construction, and Records/Archives Management of Joseon Dynasty of Korea", 4th AERI (2012.7.11. UCLA).
- Meung-Hoan Noh. 2013. "The Value and Meaning of Semiotics for Archival Science", 5th AERI (2013.6.18.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 Meung-Hoan Noh, 2014. "Eine Kritische Betrachtung über S. Huntingtons These: 'Zivilisationskollision' aus der Sicht von Sunglihak", in Peter Nitschke (Hg.), *Der Prozess der Zivilisationen: 20 Jahre nach Huntington*, Analysen für das 21. Jahrhundert, Berlin (Frank & Timme Verlag).
- O'Toole, James M, 1993. The Symbolic Significance of Archives, *American Archivist*, 56(2), 234-255.
- Pierce, Charles, 1991. Peirce on signs : writings on semiotic. Chapel Hill: UNC Press. (김동식, 이유선 역. 2008. 『피어의 기호학』. 파주: 나남).
- Posner, Ernst, 1972. *Archives in the Ancient World*, Boston: Harvard University Press.
- Upward, Frank, 1996. Structuring the Records Continuum, Part One: Postcustodial Principles and Properties. *Archives and Manuscripts*, 24-2. Retrieved <http://www.infotech.monash.edu.au/research/groups/rcrg/publications/recordscontinuum-fupp1.html>
- Upward, Frank, 1997. Structuring the Records Continuum, Part Two: Structuration Theory and Recordkeeping. *Archives and Manuscripts*, 25-1. Retrieved <http://www.infotech.monash.edu.au/research/groups/rcrg/publications/recordscontinuum-fupp2.html>